
22-2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팀명 : 호모 루덴스

2019 이○호

2020 이○영

2020 이○하

1주차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호모 루덴스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10월 26일(수요일) / 장 소 : 온라인 ZOOM							
참석자 명단	학번	20192129	이름	이○호	학번		이름	
	학번	20202232	이름	이○영	학번		이름	
	학번	20202234	이름	이○하	학번		이름	
	학번		이름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1주차 현대 사회 속 이슈를 알아보고 의견 나누기</p> <p>- 심비우스 첫 활동에 앞서 앞으로 읽을 책과 관련된 현대 사회의 이슈를 정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SNS 인간소외, 딥페이크 범죄 등 총 3개의 이슈가 거론됐다. 조원마다 각각의 이슈를 조사하기로 할당했고 관련된 추가적인 이슈도 조사했다. 아래는 이번 활동에서 언급된 현대 사회 이슈에 대한 조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내용이다.</p> <p>1. 개인 의견</p> <p>- 이○호: SNS는 현대 사회에 있어 불가분의 관계망이다.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고 타인과 대화하고 관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나머지 나와는 상관없는 정보들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타인의 SNS를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든지, 전산상에 보이는 친구의 수를 늘리기 위해 허위적인 관계를 맺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SNS라는 관계망에 갇혀 발버둥을 치면서 심지어는 소외되기도 한다. 이를 사회가 병들어가는 전조증상이라고 보았고 우리는 이에 대해 해답을 찾아야 한다.</p> <p>- 이○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현재 나토 가입 문제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다. 2번의 잔혹했던 세계 대전을 치루고도 전쟁을 선택한 러시아의 결정이 매우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렵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사해보니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이데올로기 즉, 사상 차이로 인해 생겨난 미국과의 냉전체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우리 팀은 다음 활동 때 읽을 <동물농장> 텍스트를 통해 올바른 리더상은 무엇인가에 대해 토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p> <p>- 이○하: 딥페이크 범죄는 미디어가 고도로 발달하고 컴퓨터 그래픽 활용 기술이 무궁무진하게 활용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심각한 사안이다. 우리나라의 전자 통신법을 확인해보니 아직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에 관한 명확한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범죄를 예방할 체계적인 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p>							

- 오○록: 앞에 거론된 3개의 이슈 이외에 현재 SPC 20대 여성 노동자 사망 사건을 조사했다. 한 기업의 소홀한 공장 시스템 관리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다. 기업의 대표자는 이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을 다음 활동 때 토의할 한 조직의 리더의 자세와 방향성에 관련된 참고 이슈로 다루어도 좋을 것 같다.

다음 활동에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읽고 책에 대한 각자의 감상평과 조직의 올바른 리더상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2. 활동 사진

2022년 10월 26일

참가자대표 : 이○호

2주차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호모 루덴스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10월 31일(월요일) / 장 소 : 도서관 스테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이○호	학번	20202234	이름	이○하
	학번	2020	이름	이○영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2주차 대립하는 이데올로기와 인간 (선정 도서 : 동물농장, 조지 오웰)</p> <p>- 이번 활동은 우리가 선정한 작품을 실제로 읽고 감상평을 나누고 토의를 진행하는 첫 번째 활동이었다. 활동 전 각자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을 읽고 온 것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책의 줄거리, 감상평 및 전체주의 사상과 올바른 리더상은 무엇인지 토의했다. 아래는 <동물 농장>을 읽고 느낀 조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내용이다.</p> <p>1. 내용 요약</p> <p>- 깨어있는 늪은 돼지 ‘메이저’의 연설을 통해 농장에서 인간의 지배를 받던 동물들은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다. 똑똑한 돼지인 나폴레옹과 스노볼을 중심으로 농장 동물들은 인간을 쫓아내는 데에 성공했으며 적게 일하고 많이 누리는 태평천하를 이루었다. 그러나 권력욕이 강한 나폴레옹은 스노볼과 매번 부딪쳤고 결국 그를 쫓아내기에 이른다. 권력을 잡은 나폴레옹은 독재를 펼치기 시작했으며 농장 동물들은 많이 일하고 적게 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돼지들은 인간처럼 옷을 입고, 두 발로 걸어 다니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결국 ‘누가 인간이고 누가 돼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문장과 함께 이야기는 끝이 난다.</p> <p>2. 감상평</p> <p>- 이○호: 작품 속 늪은 메이저 영감은 죽기 전 동물주의 7원칙이라는 평등의 원칙을 외치고 생을 마감했다. 동물들은 메이저의 이념 하나로 단합했고 그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했다. 이를 보고 과거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계급혁명을 떠올렸다. 소련이 독재자의 횡포로 인해 망한 것처럼 작품 속 동물 사회 또한 잘못된 리더로 인해 파국으로 향한다. 동물농장은 본래 독재 체제가 아니었다. 스노볼과 나폴레옹 둘이 함께 실권을 잡고 동물 사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이 체제에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스노볼은 도망가고 나폴레옹은 그렇게 독재자가 되었다. 나는 이러한 나폴레옹의 행동이 과거 무솔리니, 히틀러, 스탈린과 유사하다고 느꼈고, 조지 오웰 또한 이들을 비판하기 위해 나폴레옹이라는 캐릭터를 비유물로서 사용한 것 같다. 책을 읽고 과연 올바른 리더상에 대해 생각해 보다가 과연</p>							

스노볼은 올바른 리더였을까 생각을 해보았다. 나는 올바른 리더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통, 책임감, 결단력이 그 3가지이다. 하지만 스노볼의 경우 나폴레옹과 다르게 온전하고 타 동물들과 소통이 잦았지만 책임감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책임감이 정말 강한 리더였다면 나폴레옹의 사냥개가 공격할 때 도망가지 않고 죽을지언정 끝까지 농장에 남았을 것이다. 만약 스노볼이 강한 책임감을 갖췄다면 동물 사회가 유토피아에서 디스토피아로 전락하는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 이○영: 전체주의 사상의 무서움을 알 수 있는 책이었다. 전체주의는 개인은 민족, 국가의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상으로 절대권력자가 존재한다. 동물농장에서도 처음에는 인간과 대항하여 승기를 잡기 위해 지휘할 역할을 위해 지식층인 돼지 스노볼, 혹은 나폴레옹이 권력을 가진다. 그러나 스모볼과 달리 나폴레옹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커지며 스노볼을 죽이거나 7계명을 수정하는 등 마치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대상인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이기적인 행태를 보여 충격적이었다. 특히 배경을 알고 나니 어릴 때 읽었던 내용보다 신랄하게 스탈린의 독재 정치 및 전쟁, 냉전 시대의 분위기를 비판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인상 깊었다. 사실 전체주의에서 한 인간이 모두를 지배하고 권력을 독점한다는 사상 자체가 그리 오래갈 수 없는 사상이다. 인간은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고, 자신도 희생 대신 권력을 차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분명히 피지배층의 반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독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도덕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것을 히틀러, 전두환 등의 사례로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리더는 집단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도덕적인 가치 판단에 의해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이○하: 더 나은 농장을 위한 개혁이 퇴화된 농장 환경을 만들었다. 평등을 외쳤으나 계급이 형성되었고 인간을 쫓아냈으나 또 다른 인간(돼지 나폴레옹 무리)이 자리했다. 동물농장을 읽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국민의 무지'였다. 무지한 동물들은 돼지들의 술수에 넘어가 거짓을 진리라 믿으며 수용한다. 이 책을 통해 깨어있는 국민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와 별개로, 가장 아쉬움이 남았던 캐릭터는 스노볼이었다. 이상적 리더였으며 농장을 위해 일할 역량이 충분한 존재였다. 그러나 그는 나폴레옹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 스노볼만의 세력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보면서 이상적 리더는 도덕, 이성, 지혜와 더불어 자신만의 세력 구축도 갖춰야 할 중요 요소로 고려하게 되었다. 일할 능력은 되는데 이를 뒷받침해 줄 존재가 없다면 스노볼처럼 권력투쟁에서 패배해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다음 활동에는 조지 오웰의 <1984>를 읽고 책에 대한 각자의 감상평과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나치즘과 파시즘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3. 활동 사진
--	----------

2022년 10월 31일

참가자대표 : 이○호

3주차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호모 루덴스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11월 7일(월요일) / 장 소 : 외부 카페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이○호
	학번	2020	이름	이○영
	학번	2020	이름	이○하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3주차 전체주의 속 자유를 상실한 인간 (선정 도서 : 1984, 조지 오웰)</p> <p>- 이번 활동은 조지 오웰의 <1984>를 읽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파시즘과, 나치즘에 대해 탐구하고 소설 속 '빅 브라더' 체제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를 현대 사회에 접목시켜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의견을 나누었다.</p> <p>1. 내용 요약</p> <p>- 1984 속 미래 세상은 훨씬 더 발달했으나, 개인들은 현재보다 더욱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 계급이 나뉘어있는데 하층 계급은 노예와도 같은 취급을 받고, 노동자 계급은 끊임없는 감시와 지배 속에서 각자의 일을 수행해야 한다. 주인공은 우연히 출입금지 구역에 들렀다가 펜과 노트를 얻게 되고, 금지된 행위인 '글'을 쓰며 점차 억압을 인지하고 자유를 갈망한다. 이 과정에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함께 바꾸어나가려 하지만 동료로 인식했던 오브라이언이 배신을 하면서 모든 일을 잊고 완벽하게 세뇌를 당하며 암울하게 끝이 난다.</p> <p>2. 감상평</p> <p>- 이○호: 저번 주의 <동물농장>에 이어 이번 주차에는 조지 오웰의 또 다른 명작인 <1984>를 읽게 되었다. 소설을 읽으면서 독재 체제로부터 항상 감시당하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소설 후반 부에 밝혀지는 '빅 브라더'의 정체가 가장 인상에 남았다. '빅 브라더'는 소설 내내 과거 나치의 히틀러를 연상케 하는 독재자 인물로 묘사되었는데 알고 보니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허상 속의 인물이었다. 그저 국민을 선동하고 세뇌하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거짓을 꾸며냈다는 것이 무서웠다. 또한, 빅 브라더가 국민을 항상 감시하고 있는 모습은 과거 독재 국가들의 특수경찰, 나치군들을 연상케 했다. 나는 이러한 모습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스마트폰을 현대판 빅 브라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일상을 보낸다. 특히 SNS 서비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SNS 앱들의 빅 테크는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으로 알려진 기업 메타의</p>			

경우 개인 정보와 활동 정보가 유출되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 사용의 심각한 문제를 보면 빅 브라더가 떠오른다. 언제나 우리는 스마트폰과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시를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영: 주인공이 몰래 기록을 하며, 이 사회가 잘못되었다고 인식한 이유는 그가 더 자유롭던 이전의 사회도 겪어봤기 때문이고, 자신이 담당할 일이 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짓과 부조리를 숨기고 수정, 폐기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일을 담당했다면 어떤 의문도 품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처럼 살았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애초에 이 사회에서 어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불평등하고 삭막한 사회에 길들여져 마치 순수한 악마 같은 아이들과는 다르다. 그들은 세뇌 속에서도 어느 정도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신고를 당할까 봐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소설 또한 전체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텔레스크린을 통한 당의 지배와 신어 제작, 이중사고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현실적으로 묘사했다. 주인공의 친구가 진행하는 구어 폐기와 신어 제작, 즉 언어적 통제 또한 큰 억압 중 하나인데 개인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아예 줄여버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에도 언어 통제부터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오히려 자유를 가진 하층 계급이나,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뜻을 모아 벗어나고자 해야 하지만, 당의 지배도 심할뿐더러 이미 상황에 순응해버린 사람들이 협력, 통합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깨어있는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힘을 모아 체제를 뒤엎으려는 시도가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 이○하: 조지오웰의 1984는 암울한 시대상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한다.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글 속에는 '희망' '기대'와 같은 밝음을 찾아보기 어렵다. 전체주의에 지배된 세계에 반항심을 품고 있던 주인공 윈스턴의 세계는 전쟁이 쉽게 발발한다. 아니, 전쟁이 끝난 적이 없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국민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쟁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한 듯하다. 토론 중, 과연 전쟁은 정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조원의 의견이 있었다. 그 말을 듣고 전쟁조차 거짓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야말로 거짓이 가득한 국가, 거짓으로 가득 찬 마음, 거짓으로 외치는 생각, 그리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세상이었다. 거짓 속에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무지에서 깨어나야 한다. 국가의 잘못을 잘못이라 일컬을 수 있는, 지각 있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 '동물농장'의 연장선으로 조지오웰은 깨어있는 국민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와 체제, 그리고 국민의 무지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다음 활동에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읽고, 과도한 과학기술 발달이 초래한 현대 사회의 디지털 범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토의할 것이다.

	3. 활동 사진
--	----------

2022년 11월 7일

참가자대표 : 이○호

4주차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호모 루덴스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11월 14일(월요일) / 장 소 : 외부 카페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이○호
	학번	2020	이름	이○영
	학번	2020	이름	이○하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4주차 고도로 발달한 기술과 인간성의 상실 <선정 도서 :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p> <p>- 이번 활동에서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읽고, 현대 사회의 딥페이크 범죄 이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이와 같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함께 토의했다.</p> <p>1. 감상평</p> <p>- 이○호: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대표적인 3대 디스토피아 소설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멋진 신세계>는 다른 디스토피아 소설들과 다르게 느껴진다. 체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다룬 타 소설들과 다르게 <멋진 신세계>는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소설 속 세계관은 다소 충격적이다. 모든 아기들은 인큐베이터에서 배양되고 태어날 때부터 각자 계급을 부여받은 뒤 그에 맞게 양육된다. 그렇게 계급을 부여받은 아기들은 자라 각자 계급에 맞게 살아가며 분업화된다. 내가 정말 무서운 점은 아무도 자신의 계급, 삶에 대해 의문을 가지거나 불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는 곧 자유를 상실했다는 의미로 느껴졌다.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은 상황에 안주하고 불만을 품을 생각조차 못 한다는 것은 자유롭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나는 의문이 들었다. 과학기술 발전의 목적이 인간을 풍요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려는 것인데 소설 속의 결과는 끔찍하다. 그렇다면 과연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무조건적인 득인가? 그 고민의 답은 아니었다. 우리는 현재 과학기술로 인해 야기되는 딥페이크, 개인정보 도용과 같은 범죄들을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은 어떠한 식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봤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범죄를 낳는다고 발전을 중단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다. 과학기술로 인해 우리가 얻는 이점 또한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범죄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범죄에 대한 법안을 충분히 제정하고 전문가들의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윤리 의식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것들이 필수적으로 지켜진다면 디지털 범죄율을 낮추면서 과학기술의 발전 또한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p>			

- 이○영: 1984와 멋진 신세계는 같은 디스토피아 소설임에도 중심 소재가 다르다. 1984는 억압과 지배가, 멋진 신세계는 원초적 욕망이 중심이다. 멋진 신세계 속 주인공 버나드가 처음에는 신세계에 의문과 불만을 품고 마약을 먹지 않거나, 여자를 여럿 만나는 대신 한 여자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 체계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실 그런 행동은 소외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으며, 비로소 주목을 받는 입장이 되자 버나드도 결국 변해버렸다는 게 충격적이었다. 이 사회에서는 모든 인간이 인공수정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되며, 마찬가지로 계급이 존재한다. 다른 주인공 존은 신세계 밖의 사람으로, 야만인으로 불린다. 문명 세계에 들어오고 나서도 끝까지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소외와 무력감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것 또한 ‘소외’를 겪어본 이들만이 그 사회의 불합리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보여 안타까웠다.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숨기면 숨겼지, 굳이 사회의 단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회의 미래는 소외되거나, 저항함으로써 추방당한 ‘섬 사람들’에게 달려 있지 않을까?

- 이○하: 소설 속 멋진 신세계는 독자인 우리에게 전혀 멋져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본인의 계급에 만족하고 행복해한다(물론 이 또한 세뇌로 인해 형성된 행복이다). 인간의 탄생이 사회의 입맛대로 이뤄진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사회가 지정해 준다는 말과 똑같다. 소설 밖에 있는 나에게는, 통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신세계 사회가 무섭다 못해 두려웠다. 주인공 중 한 명이자 신세계 주민인 버나드 역시 본인의 비정상적인 외모가 아니었다면 신세계에 대한 의문을 품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의 삶은 과연 사회의 발전과 함께 가는 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간 삶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이 균등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상적인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다음 활동에서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읽고, SNS, 메타버스의 발달로 인해 현대인들이 겪는 인간소외, 우울증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고 이에 맞서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해 토의할 것이다.

2. 활동 사진

2022년 11월 14일

참가자대표 : 이○호

5주차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호모 루덴스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11월 21일(월요일) / 장 소 : 외부 카페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이○호
	학번	2020	이름	이○영
	학번	2020	이름	이○하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5주차 가상 현실 속 고립 그리고 현대 사회 속 인간소외 (선정 도서 : 변신, 프란츠 카프카)</p> <p>- 이번 활동에서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읽고, SNS, 멀티버스의 발달로 인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인간 소외, 우울증 문제와 소설 속 그레고르와 현대인의 공통점에 대해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p> <p>1. 내용 요약</p> <p>- 가족을 부양하던 주인공 그레고르는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한다. 벌레로 변한 그를 보며 가족들은 매우 놀랐지만 그를 버리지 않았다. 생계를 책임지던 그레고르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일거리를 찾아 나선다. 그레고르는 자신의 방에 갇혀 가족들과 단절된 생활하게 된다. 그레고르는 점차 아들 그레고르에서 벌레 그레고르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결국, 아버지가 던진 사과가 몸에 박힌 그레고르는, 도와주는 이 없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p> <p>2. 감상평</p> <p>- 이○호: 소설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과 물질만의 중요시되던 20세기 독일을 배경으로 쓰였다. 어느 날 이유도 없이 갑충으로 변한 그레고르 잠자는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는 '해충'으로 변신했다. 그의 가족들은 집안의 책임졌던 가장이 노동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자 그를 냉대하기 시작했고 가정의 자식이 아닌 해충 그 자체로 대했다. 소설을 읽다가 흥미로웠던 점은 그레고르는 처음 자신이 갑충으로 변했을 때는 충격에 빠져 방황하지만 점차 자유를 느꼈다는 것이다. 천장을 기어 다니기도 하고 여동생의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를 느끼고 마음의 안정감도 되찾았다고 느껴졌다. 나는 이를 고단한 노동에서 해방되어 오랜만에 자연을 만끽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 바라보았다. 국가마다 근로기준법이 있듯이 일만 하고 휴식을 취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레고르 가족들은 이를 존중하고 이해하지 못했다. 20세기 독일 사회에서 휴식은 무한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이라 여겨졌던 것이다. 나는 이러한 대목을 현대인들에게서 찾아보고 싶었다. 소설 속 그레고르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수'로 치환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백수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그저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개인일 뿐인데 백수라는 명칭으</p>			

로 손가락질한다. 만약 그레고르라는 주인공이 백수 주인공으로 바뀌어도 소설의 결말은 동일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로써 노동에 대한 인식과 그 문제는 현재까지도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휴식을 존중하지 않고 노동만을 강요한다면 분명 큰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이○영: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땅히 직업을 가져야 함에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벌레와도 다름없다. 팀원들과 얘기하는 중 그레고르는 사실 정말 벌레가 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비유한 것이라는 말이 크게 공감이 되었다. 그전까지는 그레고르가 가족 중에서 가장 괜찮은 직업을 가질 수 있었고, 직업이 없는 부모님과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다. 따라서 가족들은 스스로를 벌레라고 여겼을지 모른다. 이것이 그레고르가 벌레가 된 후 여동생과 부모님이 직업을 구하며 점점 당당해지고 그레고르를 신경 쓰지 않게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카프카는 벌레가 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 속하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의 부담과 억압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들의 사랑은 받지 못한 채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 고장 난 부품 하나를 갈 듯 평생 부양했던 가족들에게 마땅한 애도도 받지 못한 채로 버려지는 그레고르를 보며 당시의 자본주의 체계는 사랑보다 자본, 능력이 우선시되는 사회임을 비판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하: 벌레가 되는 ‘변신’은 부정적인가?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일까? 토의하면서 벌레가 된 그레고르가 변신으로 인해 오히려 행복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변신의 해설에 따르면 그레고르는 소시민적인 사고체계와 가치체계 속에 사로잡혀 있어 자신의 본래 자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 현대 사회는 sns의 사용으로 ‘행복’의 기준이 정형화되고 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행복이고 이를 업로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인정을 받는다.

그레고르처럼 우리도 ‘행복’에 있어서 각자의 자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벌레가 되어 자본주의의 체제에서 벗어난 그레고르는 그 안에서 무엇인가 모를 만족감을 느꼈다. 우리도 sns를 벗어난다면 자신의 자아를 찾고 나만의 행복을 구축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자발적 벌레가 되는 것이다. 바보들이 모인 세상에서 바보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닌 것처럼, 벌레들이 모인 세상에서 벌레는 그저 세상의 구성원일 뿐이다.

다음 활동에서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읽고, SNS, 메타버스의 발달로 인해 현대인들이 겪는 인간소외, 우울증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고 이에 맞서기 위해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토의할 것이다.

3. 활동 사진

--	--

2022년 11월 21일

참가자대표 : 이○호

6주차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호모 루덴스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11월 28일(월요일) / 장 소 : 외부 카페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이○호
	학번	2020	이름	이○영
	학번	2020	이름	이○하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6주차 전체와 개체 속에서 겪는 문제점에 대응하여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p> <p>〈선정 영상 : 넷플릭스 시리즈, 블랙미러〉</p> <p>- 이번 활동에서는 OTT 서비스 넷플릭스의 〈블랙미러〉의 에피소드를 시청하고 전체와 개체 속에서 겪는 문제점들에 대응하여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p> <p>1. 감상평</p> <p>- 이○호: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의 드라마 〈블랙미러〉의 에피소드 〈핫샷〉을 시청했다. 〈블랙미러〉는 옴니버스형 에피소드 구성으로 매 화마다 다른 스토리이지만 고도로 발달한 과학 기술과 인간의 존엄성 및 윤리라는 전체적인 주제는 궤를 같이한다. 〈핫샷〉은 지상계와 천상계라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지상계의 사람들은 매일같이 자전거 머신에 앉아서 페달을 밟는다. 자전거 머신의 밟을수록 메타버스 속 크레딧이라고 불리는 재화를 벌고 1500만 크레딧이 모이면 오디션에 참가할 수 있는 티켓을 살 수 있다. 이 오디션에 참가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재능을 인정받아 스타로 선정되면 천상계에 올라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계의 모든 사람들은 페달만을 밟으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다. 어느 날 남자 주인공은 우연히 화장실에서 여자 주인공의 노래 소리를 듣는다. 재능이 있어 충분히 스타가 될 것이라 판단한 주인공은 그 여성에게 자신의 모든 크레딧을 털어 오디션 참가권을 선물해준다. 그렇게 오디션을 보게 된 여자 주인공은 훌륭한 노래 실력을 선보이지만 심사위원들은 그녀에게 가수 말고 포르노 배우를 하면 천상계로 올 수 있다고 한다. 그녀는 결국 자존심과 자유를 버리고 천상계를 선택한다. 이를 본 남자 주인공은 충격에 빠져 심사위원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 그는 각성하여 매일 페달을 밟으며 1500만 크레딧을 모아 오디션 참가권을 구매한 뒤 오디션장으로 향했다. 그는 춤을 선보이다 말고 심사위원들에게 울분을 토한다.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던 그였지만 심사위원들은 오히려 그 모습에 흥미를 느끼고 그를 방송인으로 채용해 천상계로 올려보내준다. 천상계로 간 남자 주인공은 자신이 느낀 부조리함도 잊은 채 천상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드라마는 막을 내린다. 이 드라마를 보고 일제 강점기의 친일파들이 생각났다. 적국의 매력적인 제안과 유혹에</p>			

넘어가 자신의 신념도 버린 채 굴복하는 모습은 드라마의 결말과 오버랩 됐다. 이를 통해 나는 전체와 집단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개체로서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전체와 집단 속에 들어가 부조리한 인간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체와 집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념과 의지를 관철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영: 마지막 시간에는 앞서 읽은 책들의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씩 시청하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시청한 영상은 미국드라마 ‘블랙미러’의 시리즈 중 ‘시스템의 연인’이라는 에피소드이다. 영상에서 사람들은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설정된 시간 동안 누군가를 배정 받고 만남을 반복한다. 마치 멋진 신세계 속 주인공들이 계속해서 다른 상대를 만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가장 잘 맞는 베필을 고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타의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의미 없는 관계를 지속하고 끝내야 하는데, 그렇게 만나던 중 ‘딱 12시간을 만난 사람이 계속해서 생각 난다면 그들은 그 사회의 규칙을 어기고 서로를 만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실제로 에피소드 속 두 주인공은 정해진 베필이 있는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탈사회를 감행하는데, 사실 그 세계는 매칭을 가장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돌린 시뮬레이션 속이었다. 성공적인 시뮬레이션을 거쳐 현실 세계에서 매칭된 그 둘은 가상세계 속 기억이 없음에도 운명적인 첫 만남을 가진다. 사회의 속박 속에서 아무리 개인이 발버둥쳐도 사실상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때때로 사회가 개인을 보호하기도 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각 개인은 그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동물농장, 1984, 멋진 신세계, 변신을 읽으면서 사회 속에서 억압받는 개인이 그럼에도 스스로의 자유를 추구해야 하며, 잘못된 사회의 사상을 인식하고 벗어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하: 넷플릭스에서 블랙미러 ‘추락’편을 시청하였다. 개인에게 매기는 디지털 평가가 사회의 계급이자 지위, 조건이 되었다. 주인공은 5점 만점에 약 4.2점의 평점을 보유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좋은 평점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항상 밝고 친절하게 대했다. 사람들이 매기는 점수가 나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감정에 충실할 수 없었다. 마치 개인이 사라진 세상 같았다. 과거보다 온화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을지 몰라도 그 속의 개개인은 평점에 전전긍긍하는 불행한 삶뿐이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는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성장한다. 따라서 인간의 감정 표현이 제한된 사회는 얼마 못 가 무너질 것이다. 개인이 살아있어야 공동체가 유지된다. 우리 스스로가 개인에게 이뤄지는 통제와 자유를 분별하고 수용의 범위를 항상 인지한다면, 어느 하나에 치우쳐지지 않은 전체 속 개체로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최종평

모든 활동을 마치고 그동안의 활동들을 돌아보며 정리했다. 4권의 사회과학 소설을 읽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슈와 연관 지어 조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 의견이 다르고 다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3명이 이룬 집단도 이렇게 각자의 생각이 다른데 이 집단이 대규모로 커지면 얼마나 다른 생각들이 많을까 생각해 봤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다. 한 가지 이념만을 강요하고 강제하는 전체주의 성격의 집단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이로써 이번 심비우스 활동 경험을 통해 전체와 개체를 구분하고 그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갖추어야 할 자세와 경각심을 배우게 되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경험으로 남을 것이다.

3. 활동 사진

2022년 11월 28일

참가자대표 : 이○호